

자살 시도 소녀 울부짖음...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어"라며 자살 직전 울부짖는 주인공.

불교심리치유극 초연... '나도 살고 싶었다'

조계종 포교원·불교상담개발원

"야 너 좀 있냐? 가진 것 좀 내놔봐. 갑자기 출출하니 배가고프네. 우리 지금 너한테 돈 빌리는 거야. 빼앗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 좀 씻고 다녀라. 냄새나니까... 그리고 요새 누가 이런 옷 입고 다녀? 하여간 재수가 없더니까..."

"이놈의 여편네가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하려해? 이혼은 절대 안 돼!"

"나는 네 애비랑 절대 같이 못살아. 나 혼자 나가 살란다. 아이구 못살아!"

여중생인 지혜는 쉬는 시간마다 계속되는 학급 동료들의 괴롭힘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 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고,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아버지와 이혼을 입에 달고 사는 매 맞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할 틈은 보이지 않는다.

"엄마, 아빠... 나 좀 봐줘. 나 너무 힘들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중략)...엄마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어."

결국 학교폭력과 가정불화에 시달리던 지혜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감을 느끼며 자살을 시도한다.

"자살문제 수면위로 올린 좋은 계기"

'자살·학교폭력' 주제로 역할심리극 '자살 영가 위로 편지' '아미타경' 독송 창립 13주년 자살예방세미나도 열려

4월 25일 늦은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살고 싶었지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중생 지혜의 이야기가 즉흥극 형태로 진행됐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연구실과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창립 13주년을 맞이해 불교심리치유극 '나도 살고 싶었다!'를 개최, 관객들과 인간의 생명과 자살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불교 심리치유극은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 등에서 심리극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박희석 마음순심리상담센터 소장의 사회로 선보였다.

박희석 소장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절망감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관객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공연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즉흥극 형식인 심리극(psychodrama)은 상담자가 등장인물인 내담자에게 역할과 상황을 주어 자신의 삶을 단순히 말로 표현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연기를 하게 해 억압된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사회관계적 문제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리치유극에서 박희석 소장은 실제 내담자 대신 배우들과 함께 연극을 진행했다. 주인공인 지

혜를 중심으로 둘러싼 학교와 가정환경에서 겪는 감정과 갈등을 표출하게 해 심리치유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주인공이 힘든 현실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결심하고 뛰어내리기 전 독백하는 장면이 나오자, 공연장 전 좌석을 채운 객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인다.

공연이 끝난 후 '영가에게 보내는 편지' 시간이 이어졌다. 박희석 소장은 관객들에게 나눠준 종이에 자살한 영가들을 위한 위로의 편지를 쓰도록 주문하고, 사연을 소개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용서를 빌게요. 부디 극락왕생하시어, 부처님 자비 광명 속에서 이생에서 누리지 못한 행복을 누리소서."

"조카야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으면, 그 길을 선택했겠나. 도와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이어서 정수 스님(불교상담대학 교수)의 집전으로 도현 스님을 비롯해 (포교연구실장), 혜안 스님(포교사무국장) 등 10여 스님이 영가천도를 위한 '한문 아미타경'을 독송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10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 이상 자살은 남의 일이 아니고 가족을 포함한 주변 모두의 안타까운 일이자 비극이고 상처인 것이다.

도현 스님은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픔을 고스란히 감내할 유가족들, 그리고 사회가 함께 지고 가야 할 준엄한 과제"라며 "이번 불교심리치유 연극이 자살이라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연을 관람한 이현정(29, 서울 서대문구)씨는 "연극을 통해 자살한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다. 보통 자살한 사람의 유가족은 자살 사실을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만남의 장(場)을 만들어 고통을 치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살예방과 함께하는 불교' 세미나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공연에 앞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부 행사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살예방과 함께하는 불교'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최훈동 한별정신병원 원장이 '자살과 불교'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박중익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이 '노인자살의 원인과 문제점'을, 이범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가 '노인자살의 불교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범수 교수(동국대 생사의례학과)는 불교의 노인 자살 예방 대응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 불교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노인자살예방에 대해 간접적이고 단편적이며 비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문제로 삼았

다. 설법을 통한 신앙교육적 방법으로는 노인들의 자살생각이나 시도를 교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자살에 이르는 행위는 연속선상에 있는 과정이어서 단편적이기 보다 유기적 대책의 병치(並置)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이 교수는 불교계 자살예방에 주목했다. 그는 "예수재와 7·7제 등 천도제는 망자의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일뿐 아니라 유족들을 위무하는 심리치유프로그램"이라며 "천도제의 의미를 바탕으로 집단상담 원리를 적용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 교수는 불교계 노인자살 예방 활동 방안도 제시했다. 일선 사찰 등에서 죽음과 노인자살 예방 활동을 위한 배양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정 '가피회'나 '미타회' 같은 죽음준비교육의 하부조직 발족이 그것이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야에 대한 연구와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며 "또한 자금이 뒷받침 돼야 하므로 포교원 등 삼급단체에서는 유관단체들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내와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이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과 불교상담개발원이 개최한 불교심리치유극 '나도 살고 싶었다!'의 한 장면. 중학생인 지혜는 쉬는 시간마다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자살을 결심한다.



관객들이 나눠준 종이에 자살한 영가들을 위한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다.



정수 스님(불교상담대학 교수)의 집전으로 도현 스님(포교연구실장)을 비롯해, 혜안 스님(포교사무국장) 등 10여 스님이 영가천도를 위한 '한문 아미타경'을 독송했다.

불교계에 새로운 선물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불교서적전문 인터넷쇼핑몰 [불서책나라] 전화로 주문하시면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6279-2379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습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 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계,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백대참회문, 대불정능염심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필양심주경, 보광삼매론

■ 염송의법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넷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출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콘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